

신 67 웨마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하루 되세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잘 풀리지 않아서 고민하는 일이 있나요?	사탄의 계략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찬양

1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은혜의 찬양 19장)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2 주 예수 이름 높이어(찬송가 37장)

- 1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 면류관을 드려서
- 2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네 귀한 보배 바쳐서
- 3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 4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후렴]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말씀 읽기 사무엘하 18:1-15

- 1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 2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삼분의 일은 요압의 휘하에, 삼분의 일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삼분의 일은 가드 사람 잇대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 3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 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 4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백명씩 천 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 5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 6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 7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 날 그 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이만 명에 이르렀고
- 8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 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 9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 10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 11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 12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 13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 14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 15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열 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죽이니라

본문 배경

다윗은 자신의 군대를 요압, 아비새, 잇대에게 맡겨 지휘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도 전쟁에 나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군대를 지휘하며 직접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군사들은 다윗이 전쟁터에 모습을 드러내선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에 비해 수적으로 훨씬 불리했기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행위가 패배를 자청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군사들은 군사 1만 명의 목숨보다 다윗의 목숨이 더 귀하다고 여겨 다윗에게 참전하지 말 것을 호소했고, 이에 설득당한 다윗은 군사들의 뜻을 따랐습니다. 다윗은 출전하는 요압과 아비새, 잇대에게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에브라임 수풀에서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었고, 이 전쟁은 압살롬의 패

배로 끝났습니다. 압살롬의 군사들 가운데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압살롬의 군대를 치셨음을 보여 줍니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치다가 자신이 사랑하는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렸고, 노새가 그대로 달려가는 바람에 허공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상황을 전해 들은 요압은 그곳을 찾아가 가차 없이 창으로 그를 찔러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뜻에 따라 스스로 높이고자 한 압살롬을 낮추고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자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말씀 관찰

1 압살롬이 승리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다윗에게 패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2절)

답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노력이 승리를 얻었습니다.

해설 압살롬이 승리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아히도벨이 조언을 합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빨리 추격하여 다윗만 죽이고 백성은 압살롬에게 돌아오게 하자고 합니다(삼하 17:1-3). 모든 사람이 아히도벨의 생각이 좋다고 여겼습니다. 압살롬은 후세의 의견도 듣자고 합니다. 후세는 다윗을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니 신중하게 공격해야 한다고 합니다. 후세는 심중에 다윗에게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벌여 주려고 한 것입니다. 의견이 갈린 가운데 압살롬은 후세의 의견을 따릅니다. 아히도벨의 의견을 따랐다면 다윗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 그 판단의 순간에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전열을 가다듬고 군대를 효율적으로 재편할 시간이 생깁니다. 다윗은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세 개의 부대로 나누어 압살롬의 군대에 맞섰습니다(1-2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사람의 노력은 확실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2 압살롬은 어떻게 죽임을 당했나요? (14-15절)

답 요압이 상수리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해설 전쟁은 다시 시작되었고 에브라임 수풀에서 두 진영이 충돌했습니다. 이 지역은 수풀이 많았고, 이런 환경에서의 전쟁은 평지에서의 전쟁과는 달랐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의 군대보다 수풀에서의 전쟁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압살롬의 부대가 월등했으나 다윗의 군대는 수풀에서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 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8절).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서 죽은 자보다 많았다’라는 표현은 다윗의 군대가 지형지물을 잘 활용했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자연환경을 통해 압살롬의 군대를 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순간에 도망치는 신세로 전락한 압살롬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 공중에 떠 있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가 상수리나무에 걸려 있는 압살롬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말씀 적용

- 1 막막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면 가족과 나눠 보세요.
- 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문제가 해결된 경험이 있다면 가족과 나눠 보세요.

말씀 암송

7-4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마태복음 23장 12절

송세라

♩ = 112

누 구 든 지 자 기 를 높 이 는 자 는 낮 아 지 고 -

누 구 든 지 자 기 를 낮 추 는 자 는 높 아 지 리 라

마 태 복 음 이 십 삼 장 - 십 이 절 말 씀 아 멘



가정예배 기도문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사탄의 방해를 막아 주시고 주의 보혈로 지켜 주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